해안지

ORA MARITIMA

아비에누스 | 현존 본문 한국어 전문 번역

번역에 관하여

라틴어 공개 전자본을 기본으로 삼고, 가발라 이 라보르데·토레스 판본의 공개 재록본을 대조하여 전자본에서 누락된 구절을 보완했습니다. 소제목과 문단 구분은 읽기 편하도록 붙였습니다. [결락]은 전승 과정에서 사라진 부분, [본문 불확실]은 남은 글자의 해독이나 문장 연결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명과 지리 설명은 원문의 내용을 옮겼으며, 현대의 위치 비정을 본문에 끼워 넣지 않았습니다.

1. 프로부스에게 보내는 서문

프로부스여, 그대가 여러 차례 물었던 일을 나는 자주 생각하였소. 땅끝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타우리케의 바다가 어떤 모습인지, 정신과 이해력을 통해 믿을 만하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었지요. 나는 그대가 알고자 하는 것이 이 시를 통해 분명해지도록 기꺼이 그 수고를 맡았소.

내가 옛 문헌에서, 그리고 평생에 걸쳐 남몰래 몰두해 온 독서에서 익힌 그 지역의 모습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 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소.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도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기를 아끼는 것은 거칠고 매정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오.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겠소. 애정으로나 혈연으로나 그대는 내게 자식과 같은 사람이오.

그러나 그뿐이었다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오. 나는 그대가 언제나 입을 크게 벌리고 받아들이듯 옛사람들의 문헌과 그 속에 감추어진 지식을 탐독해 왔으며, 마음이 넓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이런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소. 또한 그대는 다른 누구보다도 배운 것을 잘 기억하오.

어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물의 비밀을 쏟아붓는 헛수고를 하겠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심오한 이야기를 거듭 들려주겠소?

그러므로 프로부스여, 참으로 많은 이유가 나를 움직여 그대가 간청한 일을 완수하게 하였소. 그대가 원한 것을 나의 시가 더욱 풍부하고 넉넉하게 펼쳐 보이는 일이 아버지로서의 도리라고도 생각하였소. 부탁받은 것을 내주는 것은 인색하지 않은 사람의 일이지만, 거기에 새로운 것을 보태어 선물을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은 너그럽고 후한 마음의 일이기 때문이오.

기억하겠지만 그대는 마이오티스 바다가 어떤 모습인지 물었소. 나는 살루스티우스가 그것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그의 훌륭한 지리 설명에 많은 내용을 덧붙였소. 그는 힘 있는 문체와 진실을 표현하는 솜씨, 그리고 언어의 아름다움으로 그 지역의 형태와 모습을 거의 눈앞에 보이듯 그려 냈소. 내가 보탠 내용은 여러 저자의 기록에서 가져온 것이오.

여기에는 밀레토스의 헤카타이오스, 레스보스의 헬라니코스, 아테네의 필레우스, 카리아의 카리안다 출신 스퀼락스가 등장할 것이오. 또한 옛 사모스가 낳은 파우시마코스, 이름 높은 시게에서 태어난 다마스테스, 로도스 출신 바코리스도 있을 것이오. 아티카의 시민 에우크테몬과 시칠리아의 클레온, 투리오이의 헤로도토스 자신, 그리고 웅변의 커다란 영광인 아

티카의 투키디데스도 함께할 것이오.

내 마음의 일부인 프로부스여, 그대는 이 책에서 바다 위에 솟아 있는 섬들을 만나게 될 것이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타르테소스 해협과 대서양의 물결에서 시작하여, 벌어진 대지의 움푹한 곳으로 밀려들어 먼 내륙까지 뻗어 있는 우리의 바다요.

그대는 굽이진 만과 돌출한 곶을 보게 될 것이오. 해안이 어떻게 완만하게 펼쳐지고, 산줄기가 어떻게 멀리 바닷속으로 뻗어 나가는지, 높은 도시들 곁으로 바닷물이 어떻게 밀려드는지를 알게 될 것이오.

어떤 수원에서 거대한 강들이 흘러나오는지, 강물이 경사를 따라 어떻게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지, 또 그 강들이 어떻게 섬을 둘러싸기도 하는지 설명하겠소.

항구의 안전한 두 팔이 어떻게 넓게 굽어 있는지, 석호와 호수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 높은 산들이 어떻게 바위투성이 봉우리를 치켜드는지, 흰 물결이 어떻게 숲 가장자리를 스치는지도 이야기하겠소.

우리 작업의 끝은 스키타이의 바다와 에우크세이노스의 수면, 그리고 그 바다 위에 솟아 있는 섬들을 설명하는 곳이 될 것이오. 그 밖의 지역은 내가 세계의 해안과 여러 부분에 관해 쓴 다른 책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루었소.

이 수고와 노력을 그대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 작은 저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먼 출발점에서 시작하겠소. 그대는 여기 펼쳐 놓는 내용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오. 그것은 멀리까지 찾아가 옛 저자들에게서 발굴해 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기 때문이오.

2. 대지와 대양, 헤라클레스의 기둥

대지는 넓은 세계에 펼쳐져 있고, 그 둘레를 다시 바닷물이 에워싸고 있소.

그러나 대양에서 깊은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바다를 멀리까지 펼쳐 놓는 곳에는 대서양의 만이 있소.

그곳에 가디르라는 도시가 있소. 예전에는 타르테소스라고 불렸지요.

그곳에는 굳센 헤라클레스의 기둥인 아빌라와 칼페가 있소. 하나는 앞서 말한 대지 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리비아 가까이에 있소. 사나운 북풍이 그 주위에서 울부짖지만, 그 바위들은 제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소.

3. 오이스트림니데스와 북쪽 섬들

그곳에는 돌출한 산줄기의 끝이 솟아 있소. 옛사람들은 그것을 오이스트림니스라고 불렀소. 높은 바위 봉우리를 지닌 거대한 산체가 따뜻한 남쪽을 향하여 뻗어 있소.

그 돌출부 아래로 만 하나가 벌어져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오이스트림니쿠스라고 부르오.

그 안에는 오이스트림니데스라는 섬들이 널리 흩어져 솟아 있소. 그 섬들에는 주석과 납이 풍부하오.

그곳 주민은 수가 많고 기상이 당당하며, 재주가 뛰어나고 일 솜씨가 좋소. 모두가 끊임없이 교역에 마음을 기울이오.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넓고 거친 바다와 바다짐승이 우글거리는 대양의 물결을 가르오.

그들은 소나무나 단풍나무로 선체를 짜는 법을 알지 못하며, 보통 사람들이 하듯 전나무를 휘어 배를 만들지도 않소. 놀랍게도 그들은 언제나 가죽을 이어 붙여 배를 만들고, 그 가죽배로 드넓은 바다를 자주 건너다니오.

그곳에서 ‘성스러운 섬’까지는 배로 이틀이 걸리오. 옛사람들은 그 섬을 그렇게 불렀소. 그 섬은 바다 가운데 넓은 땅을 펼치고 있으며, 히에르니족이 그 전역에 살고 있소.

그 가까이에는 다시 알비오네스족의 섬이 놓여 있소.

4. 타르테소스인들의 교역과 히밀코의 증언

타르테소스인들은 오이스트림니데스의 땅으로 가서 교역하곤 하였소. 카르타고의 식민자들과 헤라클레스의 기둥 사이에 살던 사람들도 이 바다를 찾아왔소.

카르타고인 히밀코는 그 바다를 건너는 데 넉 달로도 빠듯하다고 말하오. 자신이 직접 항해하면서 그것을 경험하여 확인하였다고 전하는 것이오.

그만큼 그곳에서는 배를 밀어 주는 바람이 불지 않고, 굼뜬 바다의 물은 움직이지 않은 채 고여 있소.

그는 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덧붙이오. 바닷물 사이로 해초가 무성하게 솟아 있어서, 종종 덤불처럼 배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오.

아울러 그는 그곳 바다의 바닥이 깊이 내려가 있지 않아, 적은 양의 물이 땅을 간신히 덮고 있다고 말하오.

바다의 짐승들은 언제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거대한 괴수들은 굼뜨고 힘없이 기어가듯 나아가는 배들 사이를 헤엄쳐 다닌다고 하오.

5. 리구리아인들과 켈트인들

그곳의 오이스트림니데스 섬들에서 배를 몰아, 리카온의 딸이 자리 잡은 하늘이 차갑게 얼어붙는 쪽으로 감히 나아가는 사람은 주민이 사라진 리구리아인의 땅에 이르게 되오.

그 땅은 오래전에 켈트인들의 군세와 거듭된 전투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소.

쫓겨난 리구리아인들은, 운명이 흔히 사람들을 이리저리 몰아가듯,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으로 옮겨 왔소. 그곳은 대부분 거친 덤불로 뒤덮인 곳이오.

그 지역에는 바위가 많고, 단단한 암벽과 위협적인 산봉우리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소.

도망쳐 온 이 민족은 오랫동안 바다에서 떨어진 좁은 바위틈에서 살아갔소. 예전에 겪었던 위험 때문에 바다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오.

그러나 뒤에 평화롭고 한가한 시간이 이어지고, 안전이 그들의 용기를 북돋우자, 그들은 높은 곳의 거처에서 내려와 바닷가 지역으로 옮겨 살게 되었소.

6. 오피우사와 뱀들의 땅

앞서 말한 지역 다음으로는 넓은 바다의 큰 만이 오피우사까지 펼쳐져 있소.

그 해안에서 내해까지, 곧 앞서 바닷물이 대지 안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던 곳이며 사람들이 사르도스 바다라고 부르는 곳까지는, 걸어서 이레가 걸리는 길이 놓여 있소.

오피우사는 그리스 땅에 있는 펠롭스의 섬이 그만하다고 전해지는 만큼 넓게 펼쳐져 있소.

이곳은 처음에는 오이스트림니스라고 불렸소. 오이스트림니족이 그 땅과 들판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오.

그 뒤 수많은 뱀이 주민들을 몰아내었고, 비어 버린 땅은 뱀의 이름을 갖게 되었소.

7. 베누스의 곶과 사투르누스의 섬

그다음에는 베누스의 곶이 바다로 뻗어 있소.

바다는 두 섬의 둘레에서 울부짖는데, 그 주위가 얕아서 배가 접근하기에 좋지 않소.

그다음에는 아리움이라는 곶이 사나운 북쪽을 향하여 솟아 있소. 여기에서 힘센 헤라클레스의 기둥까지는 배로 닷새가 걸리오.

그 뒤에는 펠라기아라는 섬이 있소. 풀이 무성하며 사투르누스에게 봉헌된 섬이오.

그런데 이 섬에는 그토록 강한 자연의 힘이 깃들어 있어서, 누군가 배를 타고 가까이 가면 곧 섬 주위의 바다가 들끓기 시작한다고 하오. 섬 자체도 흔들리고, 땅 전체가 크게 떨며 솟구친다고 하오. 다른 곳의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한데도 그러하다는 것이오.

그다음에는 오피우사의 곶이 높이 솟아 있소. 아리움의 산등성이에서 이곳까지는 이틀 항해 거리요.

8. 바람이 달라지는 만과 아칼레 섬

거기서부터 길게 벌어지는 만은 하나의 바람만으로 전부 항해하기가 쉽지 않소. 중간까지는 서풍을 타고 갈 수 있지만, 나머지 구간에는 남풍이 필요하기 때문이오.

그곳에서 타르테소스인들의 해안까지 걸어가려는 사람은 나흘째가 되어서야 겨우 길을 마칠 것이오. 우리의 바다와 말라카 항구를 향하여 길을 잡는다면 닷새가 걸리오.

그다음에는 켐프시쿠스 산줄기가 솟아 있고, 그 아래에는 주민들이 아칼레라고 부르는 섬이 놓여 있소.

이 이야기는 너무도 기이해서 믿기 어렵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여럿 있소.

사람들은 이 섬 주위의 바다가 다른 곳의 바다와 언제나 다른 모습을 띤다고 말하오.

보통 바닷물에는 유리 같은 광택이 있고, 깊은 수면은 푸른빛을 띠는 것이 분명하오. 그러나 옛 저자들은 그곳의 바닷물은 늘 더러운 진흙으로 흐려져 있고, 찌꺼기 때문에 탁한 물이 엉겨 붙어 있는 듯하다고 전하오.

9. 켐프시족·세페스족·키네테스족

켐프시족과 세페스족은 오피우사 지역의 높은 언덕들을 차지하고 있소.

그들 가까이에서는 날랜 리구리아인들과 드라가니족의 후손들이 특히 눈 많은 북쪽 아래에 거처를 마련하였소.

세페스족의 옆에는 포에타니온이라는 섬과 넓은 항구가 있소.

그다음에는 켐프시족과 이웃하여 키네테스족이 살고 있소.

그 뒤의 키네티쿠스 곶은 하늘의 빛이 기울어지는 쪽에 있소. 그 곶은 풍요로운 유럽의 맨 끝에서 높이 솟아, 바다짐승이 사는 대양의 물결을 향하여 뻗어 있소.

그곳에서는 아나강이 키네테스족의 땅을 가르며 흘러나오.

다시 만이 벌어지고, 움푹 들어간 대지가 남쪽을 향하여 열려 있소.

앞서 말한 강에서 두 물줄기가 갑자기 갈라져, 그 만의 걸쭉한 물을 뚫고 느릿느릿 나아가오. 이곳의 바다는 온통 진흙 때문에 끈적해져 있소.

그곳에는 두 섬의 높은 봉우리가 솟아 있소. 작은 섬에는 이름이 없고, 다른 섬은 오래된 관습에 따라 아고니스라고 불리오.

10. 바위 해안과 제피로스의 곶

그다음에는 험한 바위로 이루어진 절벽이 있소. 이곳 역시 사투르누스에게 봉헌되어 있소.

바다는 그곳에 부딪혀 들끓고, 바위로 된 해안이 넓게 펼쳐져 있소.

그곳에서는 털이 덥수룩한 암염소와 수많은 수염소가 덤불이 우거진 땅을 언제나 돌아다니오. 그것들은 길고 굵은 털을 기르는데, 주민들은 그 털을 군대의 천막과 뱃사람들의 덮개를 만드는 데 쓰오.

여기서 앞서 말한 강까지는 하루 거리요. 이곳이 키네테스족의 경계요.

그 옆으로는 타르테소스의 땅이 이어지고, 타르테소스강이 그 땅을 적시고 있소.

그다음에는 제피로스에게 봉헌된 산줄기가 뻗어 있소. 그 때문에 그 높은 곳은 제피리스라고 불리오.

산등성이 위로 높은 봉우리들이 솟아 있고, 거대한 산체가 하늘로 치솟아 있소. 안개가 마치 그 위에 걸터앉아 있는 것처럼 언제나 구름 낀 정상을 가리고 있소.

그곳에서부터는 온 지역의 땅에 풀이 무성하오. 주민들의 머리 위 하늘에는 늘 안개가 끼고, 공기는 짙게 엉기며, 낮빛도 흐릿하오. 밤처럼 이슬이 자주 내리오.

보통 때처럼 바람이 불어들지도 않고,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하늘을 맑게 하지도 않소. 움직이지 않는 안개가 땅 위에 내려앉아 있고, 대지는 사방으로 축축하오.

누군가 제피리스의 높은 곳에서 배를 띄워 우리의 바다로 들어간다면, 곧 서풍을 타고 나아가게 될 것이오.

11. 지하의 여신, 헤르비, 히베루스강

그다음에는 다시 산줄기가 있고, 지하의 여신에게 봉헌된 성소와 부유한 신전이 있소. 그 내실은 깊이 감추어진 동굴 안에 있으며, 신전의 가장 깊은 곳은 어두컴컴하오.

가까이에는 에레베아라고 부르는 넓은 습지가 있소.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이곳에 헤르비라는 도시도 서 있었다고 하오. 그러나 전쟁의 폭풍에 휩쓸려 사라지고, 그 땅에는 이름과 명성만 남겼소.

그다음에는 히베루스강이 흘러나와 그 물로 땅을 비옥하게 하오.

많은 사람은 히베리아인들의 이름이 바로 이 강에서 나왔다고 말하오. 호전적인 바스코네스족의 땅을 스쳐 흐르는 저 다른 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오.

이 민족의 강에 잇닿아 서쪽으로 펼쳐진 땅은 모두 히베리아라고 부르기 때문이오.

동쪽 부분에는 타르테소스스인들과 킬비케니족이 살고 있소.

그 뒤에는 카르타레라는 섬이 있소. 오래전에 켐프시족이 이곳을 차지하였다는 믿을 만한 전승이 있소.

그러나 뒤에 이웃들과 벌인 전쟁에서 쫓겨나, 다른 여러 곳에서 살 땅을 찾아 떠나갔소.

12. 카시우스산과 가디르

그다음에는 카시우스산이 솟아 있소. 그리스어가 예전에 주석을 '카시테로스'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 산에서 비롯되었소.

그다음에는 신전의 곶이 있소. 멀리에는 옛 그리스식 이름을 간직한 게론티스의 높은 곳이 있소. 우리는 게리온이 옛날에 여기에서 이름을 얻었다고 전해 들었소.

이곳에서는 타르테소스만의 입구가 넓게 벌어져 있소. 앞서 말한 강에서 이 지역까지는 배로 하루가 걸리오.

여기에 가디르라는 도시가 있소. 포에니인들의 말로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곳을 '가디르'라고 불렀기 때문이오.

이 도시는 예전에는 타르테소스라고 불렸소. 옛날에는 인구가 많고 부유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가난하고 작아졌으며, 버려진 채 폐허 더미가 되었소.

나는 이곳에서 헤라클레스의 축제를 제외하면 경탄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소.

13. 유바 왕과 타르테소스강

그러나 실제로 전해지는 일들을 믿는다면, 옛날 이 도시의 힘과 명예는 대단하였소.

그 때문에 당시 마우루시아인들이 모시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당당하고 강력하였던 왕, 옥타비아누스 군주에게 큰 총애를 받았으며 언제나 학문 연구에 몰두하던 유바는, 바다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이 도시의 두움비르 직을 맡으면 자신의 영예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소.

타르테소스강은 리구스티누스 호수에서 넓은 들판으로 흘러나와, 사방으로 흐르면서 그 섬을 에워싸오.

이 강은 하나의 흐름으로만 흘러가지도 않고, 단 하나의 물길로 아래쪽 땅을 가르지도 않소. 동쪽으로는 세 개의 물길을 들판으로 내고, 네 개의 물길로 도시의 남쪽을 적시오.

아르겐타리우스산이 그 습지 위로 솟아 있소. 옛사람들은 그 겉모습 때문에 산을 그렇게 불렀소.

그 산은 주석이 풍부하여 사면이 빛나며, 태양의 불빛이 높은 산등성이를 비추면 멀리 하늘을 향하여 더욱 강한 빛을 내뿜소.

또한 그 강은 무거운 호수의 물결 속으로 금속 부스러기를 굴려 보내며, 풍부한 광물을 도시의 성벽까지 실어 나르오.

짠 바닷물에서 멀어져 드넓은 내륙으로 이어지는 지역에는 에트마네스족이 살고 있소.

그곳에서 다시 켐프시족의 경작지에 이르기까지는 일레아테스족이 비옥한 들판에 널리 퍼져 있소.

해안 지역은 킬비케니족이 차지하고 있소.

14. 게론티스, 에리테이아, 바다의 베누스

앞서 말했듯이 게론티스의 높은 곳과 신전의 곶 사이에는 바다가 놓여 있소. 높은 바위들 사이로 만이 들어가 있소.

두 번째 산줄기 곁에서는 넓은 강이 흘러나오오.

그다음에는 타르테소스인들의 산이 숲에 덮인 채 어둡게 솟아 있소.

그 뒤에는 넓은 땅을 지닌 에리테이아섬이 있소. 이 섬은 예전에 포에니인들의 지배 아래 있었소. 옛 카르타고의 식민자들이 처음에 이곳을 차지하였기 때문이오.

에리테이아와 대륙 사이에는 폭이 5스타디온인 바다가 흐르오.

그 높은 곳에서 해가 지는 쪽으로는 바다의 베누스에게 봉헌된 섬이 있소. 그 섬에는 베누스의 신전과 동굴 안의 성소, 그리고 신탁소가 있소.

앞서 내가 숲으로 뒤덮여 있다고 말한 산에서 내려오면 완만하고 부드러운 모래 해안이 펼쳐져 있소.

그 모래밭으로 베실루스강과 킬부스강이 물을 밀어 보내오.

그다음에는 성스러운 곶이 해가 지는 쪽을 향하여 높고 거친 바위들을 치켜들고 있소.

15. 헤르마와 헤라클레스의 길

그리스인들은 예전에 이곳을 헤르마라고 불렀소.

헤르마는 흙으로 쌓은 방벽을 뜻하오. 이곳은 양쪽에서 그 사이의 물길을 막아 보호하고 있소.

다른 사람들은 이곳을 '헤라클레스의 길'이라고도 부르오. 헤라클레스가 사로잡은 소 떼를 쉽게 몰고 갈 수 있도록 바다 위에 길을 닦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오.

많은 저자는 그 헤르마가 예전에 리비아 땅에 속해 있었다고 말하오.

디오니시오스의 증언도 물리칠 만한 것은 아니오. 그는 타르테소스 지역이 리비아의 끝이라고 설명하오.

유럽 쪽에는 주민들이 '성스러운 곶'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말했던 돌출부가 솟아 있소.

그 두 곳 사이로 좁은 해협이 흐르오.

암피폴리스의 주민 에우크테몬은 헤르마, 또는 헤라클레스의 길이라고 불리는 곳의 길이가 10만 8천 보를 넘지 않으며, 두 땅 사이의 거리는 3천 보라고 말하오.

그곳에는 헤라클레스의 기둥들이 서 있소. 우리가 읽은 바에 따르면 두 대륙의 경계로 여겨지는 것들이오.

아빌라와 칼페는 서로 마주한 두 개의 돌출한 바위요. 칼페는 히스파니아 땅에 있고, 아빌라는 마우루시아인들의 땅에 있소.

포에니인들은 그것을 아빌라라고 부르는데, 이는 '야만인의 언어'로, 곧 플라우투스의 표현을 따른다면 라틴어로 '높은 산'이라는 뜻이오.

칼페는 그리스어에서 속이 비고 둥근 항아리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오.

16. 에우크테몬이 설명한 두 섬

아테네의 에우크테몬은 한편으로, 양쪽에서 바위나 산봉우리가 솟아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하오.

그는 리비아의 땅과 유럽의 해안 사이에 두 섬이 있다고 전하오. 그리고 이 섬들을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른다고 하오.

두 섬은 30스타디온 떨어져 있으며, 사방이 숲으로 덮여 거칠고 뱃사람들이 머물기에 언제나 좋지 않다고 하오.

그 섬들에는 헤라클레스의 신전과 제단이 있다고 하오. 외지인들은 배를 타고 와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는 서둘러 떠나간다고 하오. 섬에 오래 머무는 일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오.

그는 섬들 둘레와 가까운 곳에 얕은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다고 전하오.

물이 얕고 해안의 진흙이 걸쭉하기 때문에, 짐을 가득 실은 배들은 그곳에 접근할 수 없소.

그러나 누군가 그 근처의 신전에 가고 싶다면, 달의 섬으로 배를 몰아가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진 작은 배로 겨우 바다 위를 건너가야 한다고 하오.

반면 다마스테스는 그 기둥들 사이에서 들끓으며 흐르는 물길이 겨우 7스타디온이라고 말하오.

카리안다의 스퀼락스는 기둥들 사이의 물길이 보스포로스 해협의 물길만큼 넓다고 주장하오.

17. 카르타고인들의 배와 서쪽 대양

그 기둥들 너머, 유럽 쪽 해안을 따라서는 한때 카르타고 사람들이 마을과 도시들을 차지하고 있었소.

그들은 배의 바닥을 비교적 평평하게 만드는 관습이 있었소. 밑바닥이 넓은 배가 얕은 바다 위로 미끄러져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소.

히밀코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 기둥들에서 서쪽으로는 끝없는 바다가 있고, 대양이 넓게 열리며, 바닷물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소.

아무도 이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 수면 위로 배를 몰고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오.

깊은 바다에는 배를 밀어 줄 바람이 없으며, 하늘의 어떠한 바람도 배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오.

또한 어둑한 안개가 일종의 망토처럼 하늘을 감싸고, 물안개가 언제나 수면을 가리며, 낮에도 짙은 구름이 걷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오.

18. 대양의 네 갈래와 히밀코의 증언

이것이 바로 넓게 펼쳐진 세계의 둘레에서 울부짖는 오케아노스요. 이것이 가장 큰 바다요.

이 바다는 모든 해안을 에워싸며, 내륙의 바다들에 물을 공급하고, 우리의 바다를 낳은 부모이기도 하오.

이 깊은 바다의 힘은 바깥에서 수많은 만을 이루며 우리의 세계 안으로 밀려드오.

그 가운데 가장 큰 네 갈래를 그대에게 말하겠소.

첫째로 대지 안에 들어온 것은 서쪽의 물길, 곧 대서양의 바다요.

다음은 히르카니아의 물, 곧 카스피해요.

다음은 인도인들의 바다와 페르시아 바다의 수면이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남풍 아래 놓이는 아라비아의 바다가 있소.

옛사람들은 이 바다를 오케아노스라고 불렀으며, 다른 이름으로는 대서양이라고도 불렀소.

그 바다는 넓은 둘레를 이루며 펼쳐져 있고, 굽이치는 가장자리를 따라 멀리까지 뻗어 있소.

또한 대부분의 곳에서는 바닷물이 얕게 깔려 있어, 그 아래에 있는 모래를 간신히 가릴 정도요.

무성한 해초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고, 이곳의 물결은 진펄에 가로막히오.

수많은 거대한 짐승이 온 바다를 헤엄쳐 다니며, 그 짐승들 때문에 물길에는 커다란 공포가 깃들어 있소.

카르타고인 히밀코는 자신이 예전에 대양에서 이러한 것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여 확인하였다고 전하였소.

우리는 오랜 시간을 들여 카르타고 연대기의 깊숙한 곳에서 이 이야기들을 찾아내어 그대에게 전하였소.

이제 글을 앞서 다루던 곳으로 되돌리겠소.

19. 크리수스강과 말라카

그러므로 앞서 말했듯이 기둥 하나는 리비아 땅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 맞은편 유럽 땅에 솟아 있소.

그곳에서 크리수스강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오.

그 양쪽에는 네 민족이 살고 있소.

이곳에는 사나운 리비아페니키아인들이 있고, 마시에니족이 있으며, 비옥한 땅을 지닌 킬비케니족의 영역과 부유한 타르테소스인들이 있소. 타르테소스인들의 땅은 칼락티쿠스만까지 뻗어 있소.

그들 가까이에는 곧 바르베티움 산줄기가 있소.

말라카강과 같은 이름을 지닌 도시도 있소. 그 도시는 옛날에는 마이나케라고 불렸소.

그곳 도시 앞에는 타르테소스인들의 지배 아래 있던 섬이 놓여 있소. 주민들은 오래전에 그 섬을 녹틸루카에게 봉헌하였소.

섬에는 석호와 안전한 항구도 있소. 마이나케 도시는 그 위쪽에 있소.

앞서 말한 지역이 바다에서 멀어지는 곳에서는 실루루스산이 높은 봉우리를 치켜들고 있소.

20. 베누스의 해안과 버려진 도시들

그다음에는 거대한 바위가 솟아 깊은 바다로 뻗어 있소. 예전에 그곳에 소나무가 무성하였으므로, 그 바위는 그리스어로

소나무에서 나온 이름을 얻었소.

해안은 베누스의 신전과 베누스의 곶까지 이어지오.

이 해안에는 예전에 많은 도시가 서 있었고, 수많은 페니키아인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소.

그러나 지금은 버려진 땅이 사람이 머물기 힘든 모래밭을 펼치고 있소. 경작하는 이가 사라진 땅은 황폐한 채 누워 있소.

앞서 말한 베누스의 곶에서는, 전에 언급한 리비아 땅의 헤르마가 멀리 보이오.

여기서부터 다시 해안이 펼쳐지지만, 지금은 주민이 사라지고 땅도 버려져 있소.

그러나 옛날에는 이곳에도 수많은 도시가 서 있었으며, 많은 민족이 모여 그 지역을 북적이게 하였소.

21. 마시에나와 테오도로스강

그다음에는 마시에니족의 도시 가까이에 항구가 있소. 항구는 바깥바다에서 안쪽으로 굽어 들어가며, 만의 가장 깊은 곳에는 높은 성벽을 갖춘 마시에나 도시가 솟아 있소.

그 뒤에는 트레테 곶이 돌출하고, 가까이에 작은 스트롱길레섬이 있소.

그 섬 근처에는 거대한 습지가 넓은 수면을 펼치고 있소.

그곳에서는 테오도로스강이 느릿느릿 흘러나오.

그토록 거칠고 야만적인 지역에서 그리스어로 된 이름을 듣는다고 놀라지는 마시오. 그곳에는 예전에 페니키아인들이 살고 있었소.

그곳에서부터 다시 해안의 모래밭이 펼쳐지고, 세 섬이 그 해안 앞에 넓게 놓여 있소.

이곳은 옛날 타르테소스인들의 경계였소. 이곳에 헤르나라는 도시가 있었소.

22. 김네테스족과 섬들, 히베리아인들

김네테스족은 이 지역에서 시카누스강의 흐름에 이르기까지 자리 잡고 있었소.

지금은 그곳이 버려지고 오랫동안 주민이 사라진 채, 알레부스강만이 홀로 소리를 내며 흘러나오오.

그 뒤에는 바다 가운데 김네시아섬이 있소. 이 섬은 그곳 주민들에게 옛 이름을 주었소.

그다음에는 피티우사이 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발레아레스 제도의 섬들이 넓게 펼쳐져 있소.

그 맞은편에는 히베리아인들이 내해를 따라 널리 자리 잡고, 피레네 산줄기에 이르기까지 지배 영역을 뻗쳤소.

그들의 첫 도시로 일레르다가 솟아 있소.

그곳에서부터 해안은 메마른 모래밭을 펼치오.

이곳에는 헤메로스코피움이라는 도시도 예전에 사람이 살던 곳으로 존재하였소. 그러나 지금은 주민이 사라진 땅이 움직임 없는 석호의 물에 젖어 있소.

그다음에는 시카나 도시가 솟아 있소. 히베리아인들은 가까운 강에서 그 이름을 따왔소.

그 강의 갈라지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티리우스강이 티리스 도시 곁을 스쳐 흐르오.

23. 베리브라케스족과 나카라이 습지

바다에서 멀어지는 내륙으로는 덤불이 무성한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소.

그곳에서는 시골 생활을 하는 사나운 민족인 베리브라케스족이 수많은 가축 떼 사이를 돌아다녔소.

그들은 젖과 기름진 치즈를 먹으며 아주 거칠게 살아갔고, 들짐승과 같은 방식으로 생을 이어 갔소.

그다음에는 크라브라시아 곶이 높이 돌출하고, 오누사의 케르소네소스 경계까지 벌거벗은 해안이 펼쳐져 있소.

그곳에는 나카라이 습지가 뻗어 있소. 관습에 따라 그 습지에는 그러한 이름이 붙었소.

석호 한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솟아 있소. 올리브가 잘 자라는 섬이며, 그 때문에 미네르바에게 봉헌되어 있소.

24. 티리카이와 히베루스강의 교역

그 가까이에는 예전에 수많은 도시가 있었소.

힐락테스, 히스트라, 사르나, 그리고 이름 높은 티리카이가 이곳에 서 있었소.

그 도시의 이름은 오래되었고, 주민들의 재산은 세계 여러 해안에서 크게 이름나 있었소.

그 땅은 비옥하여 가축을 기르고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며, 황금빛 머리의 케레스가 주는 선물을 생산하였소. 거기에 더하여 외국 물품들이 히베루스강을 따라 실려 왔기 때문이오.

가까이에는 성스러운 산이 당당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있소.

올레움강은 인근 들판을 가르며 두 산봉우리 사이로 흐르오.

곧 셀루스산이 구름 높이까지 솟아 있소. 셀루스는 그 산의 오래된 이름이오.

예전에는 그 산 곁에 레베돈티아라는 도시가 서 있었소. 그러나 지금은 사람의 거처가 사라진 땅이 들짐승의 굴과 잠자리를 품고 있소.

25. 칼리폴리스, 타라코, 바르킬로

그 뒤에는 모래밭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소.

그곳에는 예전에 살라우리스라는 도시가 서 있었으며, 오래된 칼리폴리스도 그곳에 있었소.

그 칼리폴리스는 높이 솟은 성벽과 우뚝한 지붕으로 하늘을 향하여 치솟았소. 넓은 시가지가 둘레를 이루어, 언제나 물고기가 풍부한 석호를 양쪽에서 에워싸고 있었소.

그다음에는 타라코 도시가 있소. 그리고 부유한 바르킬로 사람들의 쾌적한 거처가 있소.

그곳에는 항구가 안전한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며, 땅은 언제나 민물에 젖어 있소.

26. 인디게테스족과 키프셀라

그다음에는 거친 인디게테스족이 나타나오.

이들은 강인하고 사나운 민족으로, 사냥과 들짐승의 소굴을 찾아다니는 생활에 매달려 있소.

그 뒤에는 켈레반티쿠스 곶이 짠 바다까지 등을 길게 뻗고 있소.

이곳에 키프셀라라는 도시가 서 있었다는 것은 이제 이야기로만 남아 있소. 거친 땅에는 옛 도시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오.

그곳에는 항구가 거대한 만을 이루며 벌어져 있고, 바닷물이 움푹 들어간 대지 깊숙이 밀려들어 있소.

그 뒤에는 인디게테스족의 해안이 피레네 곶의 끝까지 이어져 있소.

27. 말로데스산과 바람 없는 항구

앞서 말한 완만한 해안 다음에는 말로데스산이 바다 가운데 솟아 있소.

두 바위가 높이 솟아 있고, 쌍둥이 봉우리가 위로 치켜들려 있소.

그 사이에는 항구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수면은 어떠한 바람의 영향도 받지 않소.

앞쪽에 버티고 선 바위 봉우리들이 사방의 가장자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오.

바위들 사이에는 움직이지 않는 물이 숨어 있소. 바다는 고요하고, 갇힌 수면은 꼼짝하지 않소.

그다음에는 산기슭에 토니 석호가 있고, 토노니타 바위의 산줄기가 솟아 있소.

그곳을 통하여 아니스투스강이 소리를 내며 거품 섞인 물을 굴려 보내고, 그 물결로 바다를 가르오.

여기까지 말한 곳들은 바닷물과 짠 해협 가까이에 있는 지역들이오.

28. 케레테스족·아우소케레테스족·소르두스족

그러나 깊은 바다에서 멀어지는 내륙은 모두 예전에 강인한 케레테스족과 아우소케레테스족이 차지하고 있었소. 지금은 같은 이름을 지닌 히베리아인들의 민족이 있소.

그 뒤에는 소르두스족이 길 없는 지역에서 살았소.

그들의 거처는 내해까지 이어졌으며, 소나무가 우거진 피레네의 봉우리들이 솟아 있는 곳에서 들짐승의 소굴 사이로 생을 이어 갔소.

그들은 넓은 들판과 바다의 물길을 차지하고 있소.

소르두스족의 땅 경계에는 예전에 부유한 도시 피레네가 서 있었다고 하오.

마살리아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자주 교역하였소.

헤라클레스의 기둥과 대서양의 물길, 그리고 제피리스 해안의 경계에서 피레네까지는 빠른 배로 이레가 걸리오.

29. 소르디케 석호와 해안의 결락

피레네 산줄기를 지나면 키네티쿠스 해안의 모래밭이 펼쳐져 있소.

로스키누스강이 그 모래밭을 넓게 가르오.

이곳은 앞서 말했듯이 소르두스족의 땅이오.

그곳에는 석호와 습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소르디케라고 부르오.

그 넓은 물에는 잔물결이 끊임없이 일어나오. 둘레가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세게 불면 물이 자주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오.

바로 그 석호에서 소르두스강이 흘러나오오.

그리고 그 강의 하구에서 다시……

[결락]

……해안은 깊게 굽어 들어가고, 대지는 자기 몸의 일부를 잃으며 움푹 파여 있소. 바닷물은 더욱 멀리 스며들고, 넓은 수면이 펼쳐지오.

그 안에는 아주 큰 섬 세 개가 서 있고, 바다는 단단한 바위들 사이를 흘러가오.

그렇게 대지가 갈라진 만에서 멀지 않은 곳에는 다른 만이 벌어져 있소. 그 바다는 네 섬을 에워싸고 있소. 옛사람들은 그 섬들을 모두 피플라이라고 불렀소.

30. 나로와 주변의 강들

엘레시키족이 예전에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소.

나로 도시는 그 사나운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소.

그곳에서는 아타구스강이 짠 바다로 흘러들고, 가까이에는 헬리케 습지가 있소.

그다음에는 베사라가 서 있었다고 오래된 이야기가 전하오.

그러나 지금은 헬레두스강과 오로부스강이 사람이 사라진 들판과 폐허 더미 사이를 흐르고 있소. 그 폐허는 옛날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흔적이오.

그 강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는 티리우스강이 바다로 흘러나오오.

[본문 불확실: ‘키노루스’라는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와 ‘흐름’이라는 말의 일부가 남아 있음.]

[결락]

……물결의 굽이침이 결코 일어나지 않고, 알키오네의 평온이 언제나 수면을 잔잔하게 하도록……

[앞 문맥이 소실되어 문장 연결 불확실.]

31. 블라스코섬과 세티우스산

이 바위의 끝은, 내가 앞서 칸디두스라고 불린다고 말한 돌출부와 마주하여 뻗어 있소.

그 가까이에는 블라스코섬이 있고, 둥근 모양의 땅이 바다 위로 솟아 있소.

대륙 쪽에서는 높이 솟은 산줄기들 사이에 다시 모래땅이 펼쳐지고, 주민이 사라진 해안이 길게 이어지오.

그다음에는 높은 봉우리에 소나무가 우거진 세티우스산이 솟아 있소.

세티우스 산줄기의 넓은 기슭은 타우루스까지 이어지오.

타우루스는 주민들이 오라누스강 가까이의 습지를 부르는 이름이오.

그 강의 물길은 히베리아의 땅과 거친 리구리아인들의 땅을 가르오.

그곳에는 크기가 작고 재산도 넉넉하지 못한 폴리기움이라는 도시가 있소.

그다음에는 만사 마을과 나우스탈로 도시가 있고, 또 다른 도시가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소……

[본문 불확실: ‘하이시케’ 또는 그와 비슷한 민족명으로 보이는 글자가 남아 있음.]

[결락]

……카시우스강이 그 바다로 흘러드오.

32. 키메니케 지역과 론강

키메니케 지역은 짠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넓은 땅에 펼쳐져 있고 숲으로 어두컴컴하오.

그 지역의 이름은 높게 솟은 산에서 비롯되었소.

로다누스강은 그 산의 낮은 기슭을 스쳐 흐르며, 위에서 내려다보는 바위 덩어리들 사이로 물길을 굽이치게 하오.

리구리아인들은 세티우스의 높은 곳과 바위투성이 산줄기에서 내해의 물가까지 멀리 뻗어 나갔소.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로다누스강의 흐름을 그대에게 더욱 자세히 설명해야 할 듯하오.

프로부스여, 내 글이 이곳에 머물며 길어지는 것을 참아 주시오.

나는 이 강의 발원지와 굽이치는 물길, 그 물이 스쳐 지나는 민족들, 주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이익, 그리고 여러 갈래 하구에 관해 말하겠소.

동쪽에서는 알프스가 눈 덮인 산등성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있소.

바위로 된 높은 산마루들이 갈리아의 들판을 가르며, 그곳에서는 폭풍 속에 거센 바람이 언제나 몰아치오.

강은 벌어진 동굴의 입구에서 솟구쳐 나와 사나운 힘으로 땅을 가르오. 물이 생겨나는 처음의 수원에서부터 배를 띄울 수 있소.

33. 태양의 기둥과 태양의 운행

강을 내보내는 높다란 바위의 한쪽 면을 주민들은 ‘태양의 기둥’이라고 부르오.

그것은 구름 높이까지 너무도 높게 솟아 있기 때문에, 낮의 태양이 다시 하루를 가져오기 위해 북쪽 지역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산줄기가 가로막아 보이지 않게 되오.

그대도 알겠지만, 에피쿠로스학파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었소.

태양은 지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며, 결코 숨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오.

태양은 세계의 둘레를 돌고, 하늘의 비스듬한 길을 달리며, 대지에 생기를 주고, 빛이라는 양식으로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먹여 살린다고 하오.

다만 포이보스의 밝은 횃불이 일정한 지역들에서는 번갈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오.

[결락. 문두의 일부 글자만 남아 있음.]

……태양이 남쪽의 궤도를 가로질러 그 빛을 대서양 쪽으로 기울이고, 먼 북방의 히페르보레오이에게 불빛을 보내며, 다시 아케메네스인들의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려 할 때에는, 하늘의 다른 부분들을 굽은 둘레를 따라 돌아 그 끝을 지나가오.

그 광채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검은 밤이 하늘에서 밀려오고, 짙은 어둠이 곧 우리를 덮소.

그러나 그때에는 북쪽 아래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밝은 낮이 비추오.

반대로 밤의 그늘이 북방 사람들을 덮으면, 우리 모두는 찬란한 낮을 누리오.

34. 론강이 지나는 민족들과 하구

강은 수원에서 출발하여 틸랑기족과 달리테르니족을 지나고, 클라힐키족의 경작지와 레메니쿠스 지역을 통과하오.

이 이름들은 발음이 몹시 거칠어 처음 듣는 귀에는 모두 거슬리오. 그러나 그대의 탐구심과 우리의 성실한 노력 때문에, 그대에게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소.

그다음 강은 열 갈래로 펼쳐지오……

[결락]

……물길들이 되돌아 굽어 흐르면서……

그 뒤에는 석호로 들어가오. 많은 사람이 그 석호의 물이 무겁고 움직임이 없다고 전하오. 그것은 옛 그리스인들이 악키온이라고 부르던 거대한 습지요.

강은 그 석호의 수면으로 급류를 쏟아 내오.

다시 거기에서 흘러나오면 강의 모습으로 폭을 좁힌 뒤, 서쪽을 향하여 대서양의 물길, 곧 우리의 바다로 흘러드오.

그리고 다섯 개의 하구로 넓은 모래밭을 가르오.

그곳에는 아렐라투스 도시가 솟아 있소. 예전에 그리스인들이 살던 시절에는 텔리네라고 불렸소.

사정이 이러하여 나는 로다누스강에 관해 많은 것을 긴 글로 이야기하게 되었소.

그러나 이 강이 유럽과 리비아를 나눈다는 주장에는 결코 마음을 기울이지 않겠소.

옛 저자 필레우스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전한다 해도 마찬가지요. 그런 야만적인 무지는 경멸과 조롱을 받아야

하며, 그에 걸맞은 이름으로 지적되어야 하오.

35. 마살리아에서 끊기는 마지막 부분

배로 가는 길은 이틀 낮과 이틀 밤이 걸리오.

그다음에는 네아르키족과 베르기네 도시가 있고, 사나운 살리이스족이 있소.

오래된 마스트라발라 도시와 습지의 수면이 있으며, 주민들이 케킬리스트리움이라고 부르는 높은 곶이 있소.

그리고 마살리아 자체가 있소. 이 도시의 지형은 다음과 같소.

도시 앞에는 해안이 놓여 있고, 물 사이로 좁은 길이 열려 있소.

바닷물은 도시의 양옆을 씻고, 석호는 그 둘레를 에워싸며, 물결은 시가지를 핥듯 스치오.

물이 거처 둘레로 퍼져 있기 때문에, 도시는 거의 섬과 같소. 바다가 사방에서 땅 위로 팔을 뻗친 모습이오.

그러나 옛 건설자들의 끈기 있는 노력은 기술로 그곳의 지형과 자연 그대로의 땅을 극복하였소.

만일 그대가 이 옛 지명들을 오늘날의 이름으로 옮겨 보고 싶다면……

[현존 본문은 여기서 끊긴다.]

원문 자료

1. Rufus Festus Avienus, Ora Maritima. The Latin Library, 공개 라틴어 본문.

https://thelatinlibrary.com/avienus.ora.html

2. J. Gavala y Laborde·F. Torres 판본(1959) 재록. Frontiers in Marine Science(2024), “The location of Tartessos: a fresh case for the reliability of Avienus’ Ora Maritima”의 부록 1, 라틴어 본문.

https://doi.org/10.3389/fmars.2024.1379920